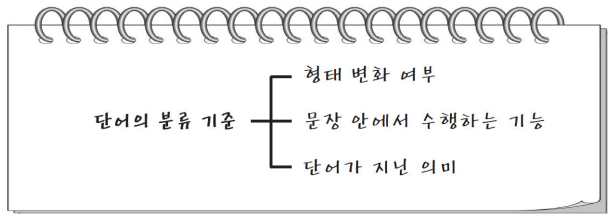


1.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. 이를 바탕으로 <보기>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2017년 11월 고1]



〈보 기〉

-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.
-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.

- ① ‘도’와 ‘만’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.
- ② ‘이루었다’와 ‘그린’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.
- ③ ‘두’와 ‘하나’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.
- ④ ‘나무’와 ‘꽃’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.
- ⑤ ‘넓게’와 ‘희미하다’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.

2. <보기>에 나오는 ‘부사’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2009년 9월 고2]

〈보 기〉

몇 시간이 흐른 뒤 도착한 곳은 ㉠겨운 열 평 남짓한 간이역이었다. 역사(驛舍) ㉡바로 옆 노점 아낙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은아를 맞았다. ‘㉢설마 민우가 이곳에 있지는 않겠지.’ 은아는 코스모스 활짝 핀 거리를 지나 언덕을 오르며 생각한다. ㉣부디 민우가 어디에 살고 있든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. 오랫동안 ㉤못 만났지만, 은아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는 민우였다.

- ① ㉠은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도 오는군.
- ② ㉡은 체언을 꾸며 주어 그 의미를 제한하고 있군.
- ③ ㉢은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쓰이는군.
- ④ ㉣은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군.
- ⑤ ㉤은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는군.

3. <보기>를 바탕으로 목적격 조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2010년 11월 고2]

〈보 기〉

목적어는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‘체언+목적격 조사(을/를)’의 형태로 성립된다.

예) 나는 독서를 즐긴다. / 그는 책을 사랑한다.

ㄱ. 그는 누굴 더 사랑할까

ㄴ. 나는 사과를 좋아해. / 나는 사과를 좋아해.

ㄷ. 나는 너만을 좋아해. / 나는 너를 좋아해.

ㄹ. 나는 영수와 만났다. / 나는 영수를 만났다.

ㅁ. 선생님께서 책을 열 권을 주셨다.

- ① ㄱ : 목적격 조사가 ‘ㄹ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구나.
- ② ㄴ : 목적격 조사의 자리에 보조사 ‘는’이 쓰이기도 하는구나.
- ③ ㄷ : 체언과 목적격 조사 사이에 다른 보조사 ‘만’이 올 수도 있구나.
- ④ ㄹ : 부사격 조사 ‘와’를 목적격 조사로 바꾸어 쓰기도 하는구나.
- ⑤ ㅁ : 한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가 두 번 나오더라도 이를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.

4. <보기>를 참고할 때, 밑줄 친 단어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것은?

[2011년 6월 고2]

〈보 기〉

○ 본용언은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고,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.

예) 사람들이 모두 가 버렸다. : ‘버렸다’는 ‘가다’의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뜻을 보충함.

- ① 영화는 밥을 먼저 먹고 보자.
- ② 철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.
- ③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왔다.
- ④ 힘이 드니 잠시 여기 있다 가자.
- ⑤ 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.

5. <보기>의 자료를 바탕으로 ‘용언’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2013년 11월 고2]

— <보 기> —

ㄱ. 날씨가 덥다.
 ㄴ. 날씨가 더워 온다. / 날씨가 더워온다.
 ㄷ.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. / *철수가 밥을 먹고갔다.
 ㄹ. 영희가 종이배를 접어 띄웠다.
 ⇒ 영희가 종이배를 접었다. + 영희가 종이배를 띄웠다.
 *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.

- ① ㄱ, ㄴ으로 볼 때, 한 용언이 홀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용언과 어울려 쓰이기도 하는군.
- ② ㄴ의 경우, 뒤의 용언이 앞의 용언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군.
- ③ ㄷ으로 볼 때, 문장 안에서 두 용언이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어 써야 하는군.
- ④ ㄴ과 ㄷ은 모두 ㄹ처럼 의미가 성립하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겠군.
- ⑤ ㄴ~ㄹ로 볼 때, 두 용언이 어울려 쓰일 경우 ‘-아/어’, ‘-고’와 같은 어미로 연결되는군.

6. <보기>의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? [2014년 6월 고2]

— <보 기> —

형용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‘서술하는 기능’이 있다. 예를 들어, ‘동물원에는 큰 사자가 있다.’에서 ‘큰’은 ‘사자가 크다’처럼 주어인 ‘사자가’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형용사이다. 그러나 관형사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.

ㄱ.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.
 ㄴ.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.
 ㄷ. 수리를 하고 나니 새 가구가 되었다.
 ㄹ.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.
 ㅁ. 그의 빠른 일처리가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하였다.

형용사	관형사
① ㄱ, ㄷ	ㄴ, ㄹ, ㅁ
② ㄱ, ㅁ	ㄴ, ㄷ, ㄹ
③ ㄴ, ㄹ	ㄱ, ㄷ, ㅁ
④ ㄱ, ㄷ, ㅁ	ㄴ, ㄹ
⑤ ㄴ, ㄷ, ㄹ	ㄱ, ㅁ

7. <보기>의 ㉠~㉣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2014년 9월 고2]

— <보 기> —

[선생님의 설명]
 보조사 ‘도’는 쓰임새와 의미가 다양해요. 체언뿐만 아니라 연결어미나 부사, 조사와도 결합할 수 있어요. 또 다양한 문장 성분 자리에 사용되어 ‘더함’이나 ‘동격’의 의미를 덧붙입니다. ‘놀라움의 감정’을 강조하기도 하고, ‘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’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요. 다음 수업 자료를 보면서 ‘도’의 다양한 쓰임새와 의미를 알아볼까요?

[수업 자료]
 우리 가족들은 오랜만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다. 나는 사촌 동생들과 저녁때까지 신나게 뛰어 놀고 내가 좋아하는 ㉠축구도 함께 했다. 주변이 점점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. ㉡평소에도 잘 먹지 않던 나물반찬이 많아 밥만 먹고 있었더니 할머니께서는 ㉢반찬도 먹으라며 무라셨다. 저녁을 대충 먹고 사촌 동생들과 함께 고구마를 ㉣깎아도 먹고 구워도 먹었다. 배가 부르자 피곤이 밀려와서 씻기는커녕 옷을 ㉤갈아입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.

- ① ㉠: 보조사 ‘도’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군.
- ② ㉡: 보조사 ‘도’는 다른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군.
- ③ ㉢: 보조사 ‘도’는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군.
- ④ ㉣: 보조사 ‘도’를 통해 두 가지 행위가 동등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군.
- ⑤ ㉤: 보조사 ‘도’를 통해 다른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군.

8. 다음은 '사전 활용하기'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.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2014년 11월 고2]

이1 의존명사

'사람'의 뜻을 나타내는 말.

이2

[1] 대명사

1)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.

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.

[2] 관형사

1)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.

㉡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.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한다.

이3

[1] 수사

1) 일에 일을 더한 수, 아라비아 숫자로는 '2', 로마 숫자는 'Ⅱ'로 쓴다.

[2] 관형사 (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)

1)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말.

- ① '저 모자를 쓴 이가 누구지?'의 '이'는 사람을 뜻하므로 '이1'의 용례가 되는군.
- ②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뜻풀이가 있으므로 '이2'는 다의어에 해당하는군.
- ③ '이2 [1] 1)'의 용례와 '이2 [2] 1)'의 용례를 통해 '이2'는 조사의 결합 가능 여부에 따라 품사를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.
- ④ '이 킬로미터를 걸어라.'에서 '이'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므로 '이3 [1] 1)'의 용례로 들 수 있군.
- ⑤ '이1', '이2', '이3'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군.

9. <보기>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2015년 6월 고2]

〈보 기〉

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'규칙 활용'이라고 하고,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'불규칙 활용'이라 한다. 불규칙 활용은 ㉠어간이 바뀌는 경우, ㉡어미가 바뀌는 경우, ㉢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.

- ① '춥다'가 '춥아'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, '낫다'는 '나아'로 활용하므로 ㉠에 해당한다.
- ② '엷다'가 '엷어'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, '엷든다'는 '엷들어'로 활용하므로 ㉠에 해당한다.
- ③ '먹다'가 '먹어'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, '하다'는 '하여'로 활용하므로 ㉡에 해당한다.
- ④ '치르다'가 '치러'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, '흐르다'는 '흘러'로 활용하므로 ㉡에 해당한다.
- ⑤ '수놓다'가 '수놓아'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, '파랗다'는 '파래'로 활용하므로 ㉢에 해당한다.

10. <보기>의 [가]를 바탕으로 [나]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3점] [2016년 6월 고2]

〈보 기〉

[가] 품사는 단어를 '형태', '기능', '의미'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. ㉠ '형태'에 따라 불변어, 가변어로, ㉡ '기능'에 따라 체언, 용언, 수식언, 관계언, 독립언으로 나뉜다. 그리고 ㉢ '의미'에 따라 명사, 대명사, 수사, 동사, 형용사, 관형사, 부사, 조사, 감탄사로 나뉜다.

[나] 열에 아홉은 매우 착실한 학생이다.

- ① ㉠에 따라 나누면 '착실한'과 '이다'는 가변어이다.
- ② ㉡에 따라 나누면 '열'과 '학생'은 체언이다.
- ③ ㉡에 따라 나누면 '은'과 '이다'는 관계언이다.
- ④ ㉢에 따라 나누면 '아홉'과 '학생'은 같은 품사이다.
- ⑤ ㉢에 따라 나누면 '매우'와 '착실한'은 다른 품사이다.

